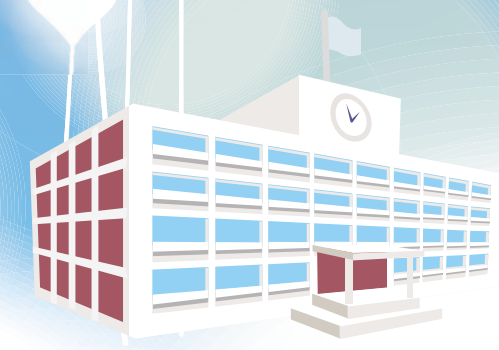


http://ctl.kookmin.ac.kr

교수학습 개발센터 사업안내



1 연구 및 개발

- 1 교수학습개발센터 운영 및 발전에 관한 전반적인 연구
- 2 센터 대외 협력체제 구축
- 3 교과목 및 학습자 특성에 적합한 교수법 개발
- 4 교수 - 학습 방법 개선에 관한 연구
- 5 교과목 운영 및 활성화 방안 연구

2 교수 지원 및 교육

- 1 일반 교수법 및 매체활용 교육
- 2 교수 - 학습 개선을 위한 학과(부)별 세미나/워크숍 지원
- 3 신입교수를 위한 교수법 자료 제작 및 특강
- 4 교수매체 활용 교육 (사이버강좌 저작도구 및 프레젠테이션 활용 교육)
- 5 강의 비디오 촬영 및 분석
- 6 이러닝 수업포트폴리오 개발지원

3 학습 지원 및 교육

- 1 학습법 관련 교육
- 2 학습지원 프로그램 개발
- 3 Study Group 활동 지원
- 4 학습검사 및 상담
- 5 학습클리닉 워크숍
- 6 마이크로칭 촬영 서비스

4 이러닝 지원 및 교육

- 1 이러닝 콘텐츠 개발 지원
- 2 멀티미디어 콘텐츠 및 교육매체 개발
- 3 교수매체 제작 지원
- 4 교수매체 활용 방법에 대한 자료 제공
- 5 사이버 강좌 개발 및 평가
- 6 사이버강좌 담당교수 워크숍

5 정보제공

- 1 교과과정 /교재개발 관련 책자 제작 및 배포
- 2 교수 - 학습 가이드북, 영어 학습법, 대학생활 안내서 발간
- 3 학습노트 제작 및 배포
- 4 뉴스레터 및 안내 브로슈어 발간
- 5 교수법 관련 자료 대여
- 6 우수 강의 사례 영상 자료 대여

국민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
KOOKMIN UNIVERSITY CENTER FOR TEACHING & LEARNING

주소 : 136-702 서울시 성북구 정릉동 861-1 국민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국제교육관 A동 203호)
전화 : (02)910-4248, 4448 Fax : (02)910-4249 E-mail : kctl@kookmin.ac.kr



국민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
KOOKMIN UNIVERSITY CENTER FOR TEACHING & LEARNING

NEWS LETTER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 861-1 Tel: 02)910-4448 Fax: 02)910-4249 http://ctl.kookmin.ac.kr 발행인: 이성우 발행처: 국민대학교 교수학습센터

CONTENTS

정보통신처장 인사말	01
교수법 가이드북 리뷰	02
교수 - 학습 전략	06
교수 지원 및 교육	08
학습 지원 및 교육	10
복약 캠퍼스 10기 스터디 그룹	12
제10기 스터디그룹 활동 사진	13
제10기 스터디 그룹 활동 후기	14



안현식 / 정보통신처장, 전자정보통신대학 교수

System) 기반 안드로이드폰이 국내에 첫 선을 보였다는 소식을 보도하고 있다.

왜 애플사의 아이폰이 이처럼 엄청난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것일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대학교수면서 정보통신처장을 맡고 있는 내 생각에는 아이폰이라는 모바일 IT기기가 갖고 있는 편리성과 매력 때문이 아닐까 한다. 애플은 현재 미국에서 '아이튠즈U'라는 대학 강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듀크대, MIT, 스탠퍼드대, 예일대, UC버클리 등 미국 250여 대학이 25만여 개의 강의 콘텐츠를 올려놓고 있다. 스마트폰을 이용하면 한국에서도 이런 강의 동영상을 볼 수 있다. 국내에서도 울산과학기술대는 이번 신학기부터 아이팟·아이폰을 이용한 교육 시스템을 도입하여 학생들이 무선 인터넷으로 강의 자료를 예습할 수 있고, 과제물도 제출할 수 있다고 한다.

인터넷을 이용한 교육 서비스로 가장 유명한 대학은 MIT이다. MIT가 2003년부터 시작한 '오픈코스웨어(OpenCourseWare)' 계획은 2000여개에 이르는 모든 강의를 인터넷을 통해 무료로 공개하는 것으로서 10년 동안 약 1억 달러의 예산이 투자되고 있다. 이 사업은 MIT 첨단교육서비스센터(CAES: Center for Advanced Educational Services)에서 주관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 강의 동영상을 올려놓고 전 세계 사람들이 무료로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스마트폰을 비롯한 다양한 모바일 IT기기의 활성화는 이 오픈코스웨어 계획을 포함하여 수많은 유무선 인터넷 기반 교육시스템에 날개를 달아준 격이다.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등록금을 받는 대학이 모든 강의를 무료로 오픈한다는 사실을 접하고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할까? 그 동안

인터넷을 통하여 패러다임의 변화를 겪은 사회의 여러 분야에 이제 교육 분야도 포함되는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 동안 각 대학의 교수 업적평가 및 외부기관에 의한 대학평가 주요 지표가 연구 부문에만 집중되어있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교수의 강의 평가와 같은 교육의 질적 수준 제고에 대한 관심이 사회적으로 크게 높아지고 있다. 얼마 전 일부 대학이 모든 교수의 강의 평가 결과를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 큰 관심을 끌기도 하였다. 미국 대학에서는 강의평가결과가 최고점인 교수와 최저점인 교수를 모두 공개하고, 최저점인 교수는 어떻게 개선 노력을 진행했는지 보고할 의무가 있는 경우도 있다.

우리 학교에도 교수학습개발센터가 설립되어 교수지원서비스(Teaching Support Service)와 학습지원서비스(Learning Support Service)를 제공하면서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여려는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특히 교수의 강의를 녹화하여 본인 스스로 평가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는 강의촬영 및 분석 서비스는 교수들의 수업 개선 노력에 충분한 동기부여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교수학습개발센터가 제공하는 교수지원서비스에는 교수법특강, 우수강의사례발표, 강의촬영 및 분석 등이 있으며, 인터넷을 통한 교육패러다임의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이러닝 콘텐츠 개발지원과 수업 포트폴리오 사업을 병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효과적인 영어강의를 위한 전략 특강을 진행하고 있다. 학습지원서비스에는 학습법 특강, 학습 검사 및 클리닉, 스터디그룹 활동 지원 서비스 등이 있다.

교육의 본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관점에 따라 정의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피교육자의 잠재적 가능성을 계발하여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자의 가르침이 피교육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어야 하고, 시대의 변화에 따라 피교육자를 중심으로 한 환경이 바뀌었다면 교육자도 그에 맞춘 눈높이 교육을 실천해야 할 것이다. 현재 교수학습개발센터에서 다양한 지원과 노력을 하고 있지만 변화하는 패러다임에 맞는 교육 환경이 구축될 수 있도록 학교 본부 및 교내 구성원들의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할 때이다.



2010. 03
Vol. 10

교수법 가이드북 리뷰

강의의 효과를 최대한으로 끌어올리는 두뇌순응 학습법



두 남자가 나무를 베기 위해 함께 숲으로 갔다. 한 남자는 점심시간을 빼고는 하루 종일 한 번도 쉬지 않고 계속 일을 했으나, 다른 한 남자는 여러 차례 쉬었고, 심지어 점심을 먹고 나서 낮잠을 자기도 했다. 해가 저물어 일을 마무리하면서 보니, 쉬지 않고 일한 남자보다 쉬어가면서 일한 남자가 베 나무가 더 많았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군, 내가 돌아 볼 때마다 앉아서 쉬고 있었는데 나보다 더 많은 나무를 베다니,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남자는 진지하게 대답했다.

“내가 쉬면서 도끼날을 가는 건 못 봤군.

아무리 급하게 가르치고 싶어도 강의 내용을 학생들에게 억지로 구겨 넣을 수는 없다. 두뇌가 정보를 단기기억에서 장기기억으로 전환하는 데에는 시간이 걸린다. 두뇌순응학습이란 이렇게 필요한 시간을 적절히 배분하여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기술이다. 두뇌순응학습은 겉으로 보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도 사실은 가장 빠른 길이다.

그럼 우리 두뇌가 도끼날을 갈 시간을 주기 위해 어떤 일을 해야 할까?

Tip 1. 의미 만들기

의미, 그리고 문맥은 집중력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 아무리 중요한 정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머리로 이해할 수 없으면 그것을 기억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가르친 정보에 의미를 새길 수 있도록 여유를 주지 않고 그냥 툭툭 던져주기만 한다면 학습 효과는 적을 수밖에 없다.

우리 두뇌는 의미를 어떻게 새길까?

강의기술. 은유 만들기

그 뜻을 이해할 수 없거나, 아무런 순서 없이 정렬되었을 때보다 의미와 문맥이 있을 때 기억하기가 훨씬 쉽다. ‘이 정보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지’ 또 ‘각각의 조각이 서로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설명하여 두뇌가 쉽게 이해하도록 하라. 이렇게 설명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는 은유를 이용하는 것이다. 은유란 복잡한 개념을 간명하게 보여주는, 따라서 기억하기 쉽게 만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오랫동안 사용되어왔다. 은유를 사용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들이 전체적인 틀을 꼭 파악할 수 있게끔 하는 일이다. 두뇌를 ‘체’에 비유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어떠한 정보든 전체 덩어리의 한 부분으로서 이해하면 ‘체구멍’으로 빠져나가지 않을 것이다.

1. 가능한 은유는 도처에 널려 있다. 다음과 같은 곳에서 찾아보라.

- 유명한 영화, 연극, TV프로그램, 책 - 특히 서점에 가면 은유가 넘치는 제목을 단 책들이 많이 쌓여있다 :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블루오션전략><CEO 칭기스칸> 등
- 장르 별로 찾아보라 - 동화, 게임, 스포츠, 서부극, 공상과학소설 등 : 레이건이 그토록 애착을 갖고 추진한 방위 프로그램 ‘스타워즈’를 떠올려보라.
- 주요 사건이나 휴일 - 영업을 하는 것은 고객과 사랑에 빠지는 것과 비슷하지 않은가? 그러면 영업을 하는 이들에게는 1년 365일이 ‘밸런타인데이’가 되어야 할 것이다.
- 법정, 공장, 농장, 광산, 심해탐험 등과 같은 특정 산업분야 - 이 책에서는 가르치는 일을 줄곧 연예 사업과 비유해왔다는 점을 인식하기 바란다. 어쨌든 남들 앞에서 말을 한다는 것이 연기를 하는 것과 별반 다를 것이 있는가?

두 뇌 휴 식

모든 주제마다 적절한 은유를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전체 강의 시간 중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는데 사용하는 시간은 25%이다. 나머지 75%는 정보를 문맥 속에 집어넣는데 사용한다. 두뇌는 이 시간을 통해 단기기억을 장기기억으로 변환시킨다. 이런 시간을 주지 않으면 두뇌는 새로운 정보를 모두 흘려버린다. 따라서 모든 강의마다 반드시 이렇게 두뇌가 쉬 시간을 주어야 한다. 강의 내용이 지나치게 뻑뻑하다면, 느슨하게 풀어라! ‘꼭 알아야 할 것’ 과 ‘알면 좋은 것’ 을 구분하라. 꼭 알아야 할 것을 뺀 나머지 지식은 버리고 그 시간을 토론, 질문, 복습, 글쓰기, 정리 또는 여러 활동으로 채워라

학생활동. 목표평가 차트

- 필요시간 : 15분 10초
- 준비물 : 팀별로 차트 종이 한 장, 컬러 매직펜
- 진행방법
 1. 학생들에게 강의의 목적을 알려주고 각각의 팀에게 그것을 차트에 쓰게 한다.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 이 강의에서 다른 이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은 자신만의 목표도 쓰게 한다. 또한 한 두개의 낯설고 우스꽝스러운 목표를 더하도록 격려한다. 예를 들자면
 - 새로운 감기 치료법 개발
 - 선생을 난처하게 만드는 질문 세 가지 만들기
 - 다른 팀이 우리를 부러워하게 만들기
 2. 팀별로 자신들의 차트를 벽에 걸어놓도록 한다. 쉬는 시간을 주고 학생들에게 차트 감상 시간을 준다. 다른 팀들의 차트를 모두 훑어보게 한다.
 3. 강의가 끝날 때마다 잠깐 시간을 내 팀원들 스스로 자신들의 차트에 적어둔 목표에 얼마나 다가섰는지 평가하도록 한다

「HaHaHa 유머 교수법」, 도니 램블린 지음: 윤영삼 옮김, 다산북스, 토니 램블린의 「유머교수법」9장 강의의 효과를 최대한으로 끌어올리는 유머 교수법의 내용 중 수업상황에서 비교적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교수-학습 가이드 Tip을 발췌 정리하고, 설명을 필요로 하는 부분은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발췌 및 수정 : 도영미(본 센터 연구원)

다. 목표에 다가설 때마다 팀 스스로 격려하고 환호하도록 하라. 이때 강의실 안은 환호성으로 가득 찰 것이다. 이는 매우 좋은 현상이다! 축하하고 응원하는 소리는 긍정적인 분위기를 만들고 두뇌의 기능을 강화한다. 이런 모습은 다른 팀들에게 부러움을 살 것이다. 결국 모두들 다음 시간이 끝날 때에는 자신들도 그런 기쁨을 만끽하고 싶다는 생각을 간절하게 할 것이다. 이것이 역할모델육구를 통한 동기 부여이다.

◎ 요령 : 처음 목표를 세울 때 가장 큰 웃음을 얻는 항목에 굉장한 상을 줄 것이라고 말한다.

Tip 2. 주의력을 높여라

우리 두뇌는 의미를 새기기 위해 주기적으로 쉬어야 할 뿐만 아니라 주의력을 높이기 위해서도 쉬어야 한다. 그러나 사람마다 가장 효과적인 휴식시간은 다를 수 있다. 어떤 사람은 30분마다 5분 휴식이, 또 어떤 사람에게는 45분마다 2~3분의 휴식이 효과적일 수 있다.

학생활동. 온몸 뒤틀기

우리 두뇌는 좌뇌와 우뇌가 동시에 똑같이 작용할 때 가장 큰 기능을 발휘한다. 하지만 양쪽 뇌에 공급되는 피는 서로 일정하지 않으며 거의 대부분 한쪽 뇌에만 피가 몰리는 경우가 많다. 두뇌의 오른쪽이 몸의 왼쪽을 관장하고 두뇌 왼쪽이 몸의 오른쪽을 관장한다는 것은 매우 잘 알려진 사실이다. 따라서 몸의 왼쪽과 오른쪽을 제각각 움직이는 온몸 뒤틀기 운동은 두뇌의 양쪽을 동시에 사용하도록 한다. 이는 두뇌 양쪽에 피의 흐름을 균등하게 할 뿐만 아니라 주의력을 높인다. 따라서 중요한 내용을 강의하기에 앞서 잠깐 쉬는 시간을 갖고 온몸 뒤틀기를 실시하면 좋다.

◎ 필요시간 : 약 2분

◎ 진행방법

1. 칠판에 위, 아래, 오른쪽, 왼쪽 방향 화살표를 그린다.
2. 화살표를 하나씩 가리키며 학생들에게 화살표 방향을 소리 내어 읽도록 한다.
3. 이번에는 화살표 방향을 가리키면서 고개를 돌리게 한다. 각각 한 번씩 한다.
4. 이번에는 화살표 방향을 소리치면서 고개는 '반대로' 향하게 한다. 몇 번하면 금방 익숙해진다.
5. 이번에는 화살표 방향대로 고개를 돌리면서 반대방향을 소리치게 한다. 몇 번하면 금방 익숙해진다.
6. 마지막으로 두 방법을 복합한다. 예컨대, 처음에는 고개를 반대로 돌리고 3의 배수, 즉 세 번째, 여섯 번째, 아홉 번째에 는 말을 거꾸로 한다. 집중력도 높아지고 몸에 활기가 솟고 두뇌 활동이 왕성해진다. 무엇보다도 강의실이 웃음으로 가득 찰 것이다.

◎ 주의사항 : 학생들 중에는 30분마다 주는 휴식을 싫어하는 성격유형이 있다. 이들은 이론적인 것을 좋아하고, 유치한 활동을 싫어할 수 있다. 이러한 유형들에게는 이론적인 설명을 먼저 해주는 것이 효과적이다. 휴식이 혈액에 산소 공급량을 원활히 해준다는 사실을 체계적이고 이론적으로 설명을 해주어 그 효과를 확인시켜 주어라.



Tip 3. 정보 복습하기

말타기를 좋아하는 나는 매일 같이 목장에서 말하고 같이 살다시피 하였다. 말을 계속 타고 다녔을 뿐만 아니라, 방목장, 마구간 할 것 없이 말을 늘 쫓아 다녔다. 나는 대부분 먹이나 털을 빗겨줄 술을 가지고 다녔기 때문에 말이 경계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 보였다. 그럼에도 아버지는 늘, 갑자기 뒤에서 나타나면 말이 놀라 뒷발질 할 수 있다며 말 뒤에서 쫓아오지 말라고 주의를 줬다.

“절대 말 뒤에서 살금살금 다가가거나 놀라게 하지 마라.”

“절대 말 뒤에서 살금살금 다가가거나 놀라게 하지 마라.”

“절대 말 뒤에서 살금살금 다가가거나 놀라게 하지 마라.”

마치 찬송가를 읊조리듯 노래를 불렀다. 마침내 어느 날 마구간에 갔다가 풀을 먹고 있던 말 뒤에서 발을 헛디더 넘어질 뻔하는 순간 갑자기 겁이 났다. “내가 말을 놀랜 건가?” 나는 인기척을 냈다. 말은 귀찮다는 듯이 뒤를 힐끔 돌아봤다. 나중에 알고 보니 말은 대부분 그런 표정을 지었다. 나는 그날도 무사히 평소에 하던 일을 할 수 있었다. 나만큼 말을 좋아하는 이들은 대부분 말의 뒷발길질에 맞아본 경험이 있으나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경험을 하지 않았다. 우리 아버지가 늘 되풀이하는 말을 내 두뇌는 중요한 정보라고 판단하고 받아들인 것이다.

우리 두뇌는 왜 반복된 정보를 기억하는 것이 생존에 도움이 된다고 믿는 것일까? 생각해보자, 예컨대, 신발 끈을 매는 일이나 자동차 운전처럼 매일 주기적으로 닦치는 수많은 일을 매번 다시 배워야 한다면 어떨까? 거의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무기력해질 수 밖에 없다. 우리 두뇌는 여러 번 마주치는 정보는 당연히 또다시 마주칠 것이라고 예측한다. 그런 정보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당연하지 않은가! 따라서 어떤 강좌든 주기적인 복습 시간을 갖도록 강의를 설계해야 한다.

학생활동. 지각생 가르치기

이 기술은 10분, 15분, 20분 등 짧은 주기로 활용하는 복습 기술이다.

◎ 필요 시간 : 약 2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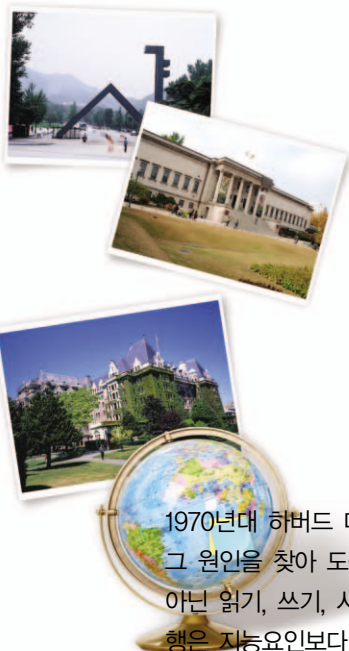
◎ 준비

강의가 시작 되면 옆 자리에 앉은 학생들끼리 스터디 듀엣으로 짝을 지어준다. 둘 중에 입이 큰 사람을 A로 정하고 작은 사람을 B로 정한다. 이 짝은 강의가 끝날 때까지만 유지해도 된다.

◎ 준비물 : 모래시계나 스톱워치가 있으면 더욱 좋다.

◎ 진행방법

1. 강의를 시작하지 20분 정도가 지나면 잠시 강의를 멈춘다. B가 지각을 해서 지금 막 강의실에 들어왔다고 가정하도록 하고, A가 B에게 20분 동안 배운 주요 내용을 1분 안에 설명해 주라고 한다.
2. 학생들의 질문도 받는다. 앞으로 설명할 내용을 묻는 경우, 학생의 통찰력을 칭찬해주고 “그 문제에 대해선 잠시 보류하라”고 한다.
3. 다음 20분이 지나면 역할을 바꿔 실시한다. B가 A에게 강의 내용을 설명한다.
4. 이 기법은 강의 중에 계속 활용하면 좋다. 복습은 우리 두뇌 속에 정보가 뿌리내리도록 하는 효과뿐만 아니라 자신이 알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매우 중요한 심리상태를 이끌어낸다. 실제로 강의 내용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자신이 알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학생들이 많이 있다. 이는 전혀 모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지식에 대해 확인할 수 없기에 새로운 내용을 배우고 진도를 나가는 일을 미적거리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활동을 활용하여 학생들 스스로 강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꾸 일깨워주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교수 - 학습 전략

전공공부를 위한 Big5 학습전략

이현경(G & T 심리연구소장), 도영미(본 센터 연구원)

1970년대 하버드 대학에 우수한 성적으로 입학한 학생 중 상당수가 낙제를 면치 못하게 되자 대학에서는 부진학생을 제적하기보다 그 원인을 찾아 도움을 주는 학습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하고, 학습부진 원인을 연구하였다. 그 결과 학생들은 지능의 문제가 아닌 읽기, 쓰기, 시험전략, 집중력 등 학습 전략에 취약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학교에서 성공적인 학습 수행은 지능요인보다 효과적인 전략 활용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Weinstein과 Mayer(1985)는 학습전략을 학습자의 부호화과정에 영향을 주거나 학습하는 동안 관여하는 '모든 사고와 행동'으로 정의하고, 시연·정교화·조직화·이해모니터링·정의적 전략·동기전략 등으로 분류하였다. Danereau(1978)은 정보의 획득, 저장, 그리고 활용을 촉진시킬 수 있는 일련의 과정이나 단계를 학습전략이라고 정의하고 이해, 파지, 회상, 사용의 주 전략과 목표계획과 설계, 주의집중, 자기점검과 진단 등의 보조 전략으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여기서는 다양한 학습전략 중 능동성, 시연, 조직화, 정교화, 메타인지 등을 중심으로 전공공부 전략을 살펴보고자 한다.

능동성 자신이 공부해야 하는 이유를 스스로 찾아 정답과 학습전략에서 가장 먼저 언급되는 것은 능동성이다. 학습자의 자기주도성과 자율성은 학습의 기본토대이기 때문이다. 적극적으로 학습에 참여할 때 학습이 촉진되며 학습결과 또한 극대화된다. 그러므로 자신이 공부해야만 하는 이유를 깊이 있게 숙고하여 찾는 것이 실제적인 학습전략을 배우는 것보다 선행되어야 한다.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공부가 필요해졌다면 이제는 보다 효과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시연 완전히 알 때까지 반복해서 공부하라
두 번째는 시연전략 즉 반복학습이다. 시연이란 기억할 수 있을 때까지의 순환 즉 감각기관에 들어오는 자극을 반복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작동기억(working memory)상의 기억을 장기기억으로 만드는 과정이다. 즉 학습해야 할 핵심내용을 반복적으로 처리해서 머릿속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기억하고 잊고 하는 과정이 반복되면서 머릿속에 오랫동안 저장되게 되는 것이다. 자료 베끼기, 노트필기 하기, 단어나 정의 암송하기, 유인물이나 교과서에 밑줄 긋기는 모두 시연전략이다. 획일적인 표현을 단순히 기계적으로 암기하도록 하는 주입식 교육은 분명 문제가 있다. 하지만 암기가 전체되지 않으면 다른 고차적인 수준의 학습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학습내용의 암기는 학습초기 단계에 반드시 필요한 인

지전략이며 시연을 통해서 증진된다. 그러나 정보가 장기기억에 저장될 때, 장기기억의 내용과 연결되지 않으면 인출이 어렵게 된다. 시연전략의 목표는 정보 기억 능력을 증가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정보와 장기기억에 저장된 정보를 연결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정보의 관계를 파악하고 의미 있게 만들기 위한 조직화와 정교화전략이 필요하게 된다.

조직화 공부해야 하는 내용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라
세 번째는 조직화전략으로 학습 자료를 구조화하여 학습을 촉진시키는 방법이다. 범주화, 위계화, 시각화의 방법으로 구분된다. 범주화는 비슷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학습내용들을 함께 묶어서 외우는 방법이다. 대부분의 학습내용들은 가장 포괄적인 상위개념과 중간개념 그리고 하위개념의 위계로 분류되어진다. 복잡한 학습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명료화하기 위해서 각 내용들을 묶어서 분류한 다음에는 위계적으로 구분하여 공부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즉 위계화는 학습내용간의 순서를 파악하여 위계상 상위개념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큰 글자나 색연필로 강조하고 체계적으로 기억하는 방법이다. 시각화는 범주화와 위계화를 통해 학습내용의 핵심을 잘 파악한 다음 개념도, 트리 다이어그램, 마인드맵 등의 노트전략을 활용하여 간결하고 알아보기 쉽게 그림이나 표로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정교화 정보를 서로 연결시켜 의미 있게 만들어라
네 번째는 정교화전략으로 장기기억에 이미 저장된 정보와 새로운 정보를 연결시킴으로써 기억을 돕는 방법이다. 성공적인 학습을 위해서는 정보가 작업 기억으로 들어갈 때 새로운 정보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지, 교재의 다른 정보들과 어떻게 관련이 되는지, 이미 학습한 내용과는 어떻게 관련되는지, 만들 수 있는 보기와 유추의 유형은 무엇인지 등을 생각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복잡한 내용을 학습하는 정교화전략은 자신의 말로 부연하기, 요약하기, 유추하기, 자기말로 노트필기하기, 질문 만들기, 질문에 답하기 등이 있다.

학습전략을 잘 활용하는 학습자는 그렇지 못한 학습자에 비해 학업성취를 30~40% 정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적절한 학습전략의 사용은 학습자의 자율성, 독립성, 자기주도성을 증진시킴으로서 자신의 학습에 책임을 질 수 있게 한다(Dickicson, 1987). 학습자의 성격이나 학습스타일이 비교적 변화가 어려운 것과는 달리 학습전략은 가르칠 수 있고, 배우기도 비교적 수월하다. 그러나 학습전략에 대한 지식만으로는 학업성취를 향상시킬 수 없다. 학습전략이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먼저 학습자들이 전략을 사용하고자 동기화되어야 한다. 그 다음 특정 전략이 언제 왜 필요한지를 배우고 이러한 전략들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배우고 훈련을 통해 자동화되어 새로운 학습장면에서 적절히 사용할 수 있어야만 효과적인 학습으로 이어질 수 있다.

메타인지 어느 정도 이해하고 얼마나 기억하는지 스스로 점검하라
마지막 메타인지전략은 자신의 인지과정을 통제하고 조절하는 것을 의미한다. 계획, 점검, 조정전략 등으로 구분하며, 목표를 수립하고 실천계획을 세워 자신의 학습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스스로 평가하는 과정이 포함된다. 효과적인 학습을 위해서 자신의 기억, 이해, 집중 등 주요 학습과정을 인식하고 조절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러한 학습과정을 조정하면서 반복되는 실수를 개선하거나 어려운 부분들을 향상시키기 위해 당연한 문제를 해결하기도 한다.

나의 Big5 학습전략 체크리스트

번호	나는	그렇다	아니다
1	살아가면서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고 있다.		
2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갖추어야 하는지를 알고 있다.		
3	내 삶과 공부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알고 있다.		
4	공부를 방해하는 문제가 생기면 스스로 해결하려고 노력한다.		
5	목표(졸업, 취업 등)를 이루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능동성			
6	강의시간에 노트필기를 꼭 한다.		
7	노트필기를 하면서 중요한 내용은 꼭 표시를 해두고 다시 확인한다.		
8	외울 때 단어나 주요개념의 뜻을 확실히 이해하면서 외운다.		
9	강의가 끝나면 꼭 배운 내용을 정리하고 복습한다.		
10	시험 전에 여러 번 반복해서 공부하고 외워본다.		
시연			
11	내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과 서로 관련지어 보면서 공부한다.		
12	전체 내용과 관련시켜 보면서 교재를 읽는다.		
13	강의를 듣거나 공부할 때 중요한 부분은 책의 빈 곳이나 노트에 적어둔다.		
14	강의가 끝나면 무엇을 배웠는지 내 자신의 말로 정리해본다.		
15	공부한 내용에 대해 스스로 질문을 해보고 답할 수 있는지 확인해본다.		
정교화			
16	공부할 전체내용을 먼저 훑어보고 공부를 시작한다.		
17	공부할 때 중요한 내용과 그렇지 않은 내용을 구분하여 공부한다.		
18	교재를 공부할 때 제목과 소제목을 먼저 본 후에 내용을 읽는다.		
19	공부한 내용들을 서로 관련지어 전체적으로 정리하여 이해한다.		
20	기억하기 쉽게 공부한 내용을 표나 그림을 그려 정리해본다.		
조직화			
21	책을 읽다가 가끔 멈춰서, 읽은 내용을 이해했는지 확인해 본다.		
22	잘 모르거나 이해하지 못한 부분을 체크하여 확실하게 공부한다.		
23	공부한 내용을 외워야 할 때, 잘 외워지지 않으면 방법을 바꾸어본다.		
24	시험계획을 세울 때 각 과목마다 공부하는 속도를 고려해서 세운다.		
25	계획을 지키지 못하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고 해결한다.		
메타인지			

Big5 학습전략을 적용한 학습방법 10가지

- 1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계획을 세워 공부한다.
- 2 이해가 잘 안되는 문제는 알 때까지 반복해서 공부한다.
- 3 어떤 내용을 암기하기 전에 먼저 그 것을 충분히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 4 공부할 때 개념들을 모아서 나름대로 관계를 지어본다.
- 5 공부할 때 복잡한 내용은 도표나 그림을 그려서 요약해 본다.
- 6 새로 배우고 있는 내용이 이전에 배운 것들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찾아본다.
- 7 시험 공부할 때 공부한 내용을 친구들에게 가끔 설명해 본다.
- 8 새로운 개념을 배울 때는 이해하기 쉽도록 구체적인 예를 떠올려 본다.
- 9 공부하는 도중에 내용을 확실히 이해하고 있는지 점검해 본다.
- 10 공부가 끝난 후에 공부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생각해 본다.

교수 지원 및 교육

교수법 관련 교육

교수법 특강 45차 수업준비를 위한 매체제작 특강 I

- 일 시 : 2009. 08. 28. (금) 10:00 ~ 12:00
- 장 소 : 경상관 508호
- 강 사 : 도영미(본 센터 연구원)
- 내 용 : • 파워포인트 2007을 이용한 수업자료 만들기 - 기초 및 초급
• 예제 파일을 활용한 간단한 수업자료 제작



교수법 특강 46차 수업준비를 위한 매체제작 특강 II

- 일 시 : 2009. 08. 28. (금) 13:00 ~ 16:00
- 장 소 : 경상관 508호
- 강 사 : 서윤경(서울여대 교수학습지원부 교수지원 부장)
- 내 용 : • 파워포인트 2007을 이용하여 다양한 수업자료 만들기 - 중급
• 동영상 수업 자료 편집하기



교수법 특강 47차 수업포트폴리오 작성의 노하우

- 일 시 : 2009. 09. 17. (목) 10:30 ~ 13:30
- 장 소 : 본부관 401호 및 청향
- 강 사 : 강윤희(본교 국제학부 교수), 김인준(본교 연극영화과 교수)
김도연(본교 언론정보학부 교수)
- 내 용 : • 수업포트폴리오 제작방법과 수업사례
• 전공별 수업포트폴리오 작성 노하우



교수법 특강 48차 영어강의를 위한 전략 : 이공계열을 중심으로

- 일 시 : 2009. 10. 21. (수) 14:00 ~ 16:00
- 장 소 : 본부관 401호
- 강 사 : 도영규(카이스트 자연과학부 학장, 화학과 교수)
- 내 용 : • 영어 강의 초기의 어려움과 극복 사례
• 효과적인 영어강의를 위한 제언



교수법 특강 49차 효과적인 영어강의를 위한 운영전략: 인문/사회과학계열을 중심으로

- 일 시 : 2009. 11. 04. (수) 14:00 ~ 16:00
- 장 소 : 본부관 401호
- 강 사 : 박소화(서울대 인적자원개발부 연구원)
- 내 용 : • 영어강의 목적과 효과
• 영어강의 사례와 효과적인 영어강의를 위한 제언
• 인문/사회계열 영어강의 Tip



교수법 특강 50차 이러닝 수업운영 사례 발표

- 일 시 : 2009. 11. 26. (목) 10:30 ~ 13:30
- 장 소 : 본부관 401호
- 강 사 : 고한준(본교 언론정보학부 교수), 심인보(본교 나노전자물리학과 교수)
- 내 용 : • 이러닝 수업운영 사례
• 전공별 이러닝 수업 운영 노하우



수업 포트폴리오 개발 지원

본교 교수학습개발센터에서는 2008년도 2학기부터 교수님들의 수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수업포트폴리오 개발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수업 포트폴리오(teaching portfolio, 수업활동서 혹은 교수이력서)는 최근 수업활동의 자료를 선택하여 조직적이고 간결하게 정리하고, 이에 대한 분석적 자기성찰을 함으로써 향후 수업과 학습을 개선시키는데 효과적이며, 교수자로서의 전문성을 계발시키는 중요한 문서의 역할을 합니다. 2009년도 2학기 수업포트폴리오 지원 사업은 수학과 강주성 교수님, 법학과 김정환 교수님, 미술학부 김희영 교수님, 교양과정부 이익용 교수님, 산림자원학과 이정호 교수님, 영어영문학과 허필숙 교수님이 개발 지원을 받으셨으며, 아래와 같이 시행되었습니다.

- 개발 기간 - 2009. 09. 22.(화) ~ 2009. 12. 30.(수)
- 초기 모임 - 2009. 09. 17.(목) 초기 모임 및 오리엔테이션
- 종결 모임 - 2009. 12. 22.(금) 수업 포트폴리오 결과물 제출 및 개선방안 수렴

수업포트폴리오 개발 지원 사업은 이번 학기로 마무리 되고, 다음 학기부터는 이러닝 수업포트폴리오 사업으로 전환됩니다. 수업포트폴리오 개발 지원 사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시는 교수님들께 감사드립니다.

e-러닝 콘텐츠 개발 지원

본교 교수학습개발센터에서는 지식정보사회로의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 요구 및 e-러닝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2009-1학기부터 이러닝 콘텐츠 개발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닝은 ① 교수자-학습자, 학습자-학습자의 직접 상호작용 ② 실시간 또는 비실시간 토론과 협력 학습 촉진 ③ 분산된 집단 내에서의 사례연구 방법, 프로젝트 수행 ④ 가상집단에 의한 협동연구, 프로젝트 개발 ⑤ 비정형화된 지식의 창출 및 관리 ⑥ 학습커뮤니티를 통한 집단지식의 형성 및 공유를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2009년도 2학기 이러닝 콘텐츠 개발 지원 사업은 언론정보학부 김영옥 교수님, 영어영문과 육은정 교수님, 법학과 이호선 교수님께서 선정되어 개발 지원을 받으셨습니다.

2010년 1학기부터 e-러닝 콘텐츠 개발지원 사업과 포트폴리오 개발 지원 사업이 병합되어 e-러닝 수업포트폴리오 사업으로 시행됩니다. e-러닝 개발 지원 사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 교수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강의 촬영 및 수업분석 서비스

본교 교수학습개발센터에서는 교수님들의 효과적인 교수학습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강의촬영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강의촬영 서비스는 교수님들의 실제 수업장면을 촬영하여 수업행동을 분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강의촬영 및 분석 서비스와 사이버강의용 또는 보강용 수업촬영 서비스를 나누어 제공하고 있습니다. 교수님들의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① 신청방법 : 교수학습개발센터 홈페이지(<http://ctl.kookmin.ac.kr>)의 교육 프로그램 → 신청서식에서 강의촬영 및 분석서비스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내방(국제관 A동 203호) 또는 메일(kctl@kookmin.ac.kr)로 신청.

학습법특강 23차 **학점을 쑥쑥 올려주는 A+ 학습 솔루션 I**

- ① 일 시 : 2009. 01. 21. (목) 10:00 ~ 12:50
- ① 장 소 : 국제교육관 A동 202호
- ① 강 사 : 김미라(엘리후 심리연구소장, 학습클리닉 전문가)
- ① 내 용 : • 학습스타일 진단(Felder 검사)과 전략 수립
• 비전수립과 시간관리 전략



학습법특강 24차 **학점을 쑥쑥 올려주는 A+ 학습 솔루션 II**

- ① 일 시 : 2009. 01. 21. (목) 14:00 ~ 16:50
- ① 장 소 : 국제교육관 A동 202호
- ① 강 사 : 이현경(G & T 심리연구소장, 학습클리닉 전문가)
- ① 내 용 : • 전공공부를 위한 Big Five 학습전략
• 집중력을 위한 스트레스 관리 전략



학습 지원 및 교육

학습법 관련 교육

학습법특강 22차 **대학공부를 위한 「학습 길라잡이」**

- ① 일 시 : 2009. 10. 15. (목) 15:00 ~ 16:50
- ① 장 소 : 국제교육관 A동 104호
- ① 강 사 : 이수진(본교 교육학과 교수)
- ① 내 용 : • 대학에서의 학업과 적응
• 학습동기의 이해와 전략
• 감정 다스리기
• 물리적·사회적 환경 관리하기
• 대학에서의 효과적인 학습전략



마이크로티칭 촬영 지원

본교 교수학습개발센터에서는 효과적인 교수-학습활동 지원을 위하여 교과과목을 이수하는 학생이나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각 과 교재 연구 및 지도법 수업의 마이크로티칭 촬영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티칭 촬영 서비스를 위해 2실의 수업 행동분석실을 확보하고 있으며, 수업분석실에는 전자교탁, 타블렛 모니터, 천장형 카메라 1대, 화이트스크린, 빔프로젝트, 이동용 카메라 등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촬영된 동영상은 학생들이 편리하게 이동용 메모리로 저장할 수 있으며,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CD로 제작하여 제공합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① 신청방법 : 교수학습개발센터 홈페이지(<http://ctl.kookmin.ac.kr>)의 교육 프로그램 → 신청서식에서 마이크로티칭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전화(☎910-4248), 내방(국제관 A동 203호), 메일(kctl@kookmin.ac.kr)로 신청.

학습검사 및 상담 서비스

본교 교수학습개발센터에서는 학생들의 학습문제를 도와주기 위하여 학습검사 및 상담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RIASEC이론을 기반으로 자신의 학습유형을 탐색하고 강점을 강화하고 약점을 보완하고, 학습과 관련된 전반적인 문제를 점검하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번 2009-2학기 학습검사 및 상담서비스는 총 40명이 개인 검사 및 상담서비스를 받았습니다.

복악 캠퍼스 10기 스터디 그룹

2009-2학기 제 10기 스터디 그룹 활동 : 2009. 09. 14(월) ~ 11. 27.(금) 총 11주

초기 44개 그룹 총 183명이 초기 활동을 시작하였으나, 이중 22개 그룹 96명이 중도 탈락하고 22개팀 86명이 학기말까지 스터디 그룹 활동을 지속하여 최종지원을 받았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한 팀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우수그룹은 아래와 같습니다.

우수 스터디 그룹

1. 시상기준

- ①구성원들의 성실한 출석(중도탈락자 없을 것)
- ②충실한 주간학습보고서
- ③학습목표 달성 정도
- ④교수님과의 학업 상호작용 정도

2. 수상팀

① 합리적 탐구상

- Topology II (자연과학대학 수학과)
곡면위상수학 및 연습(김재룡 교수님) - 김민구, 서하진, 한지혜
- 프레그머티즘 II (법과대학 사법학)
금융법(남유선 교수님) - 김문환, 이신, 손경미

② 주도적 학습상

- 동고동락 (문과대학 중어중문학과)
회계학원론(남영호 교수님) - 이은진, 박소연, 김신애
- New 남매스터디 (법과대학 사법학과, 법학과)
물권법(김동훈 교수님) - 전승일, 김초희, 김형철, 박상백, 김정현
- PINGU (전자정보통신대 컴퓨터공학부)
알고리즘(최준수 교수님) - 임유리, 장우석, 박일남
- pftα (자연과학대학 수학과)
해석학 및 연습(2) (강영욱 교수님) - 최완승, 황규연, 박미정, 강지수, 이예슬
- 공부모임 빠른 (공과대학 건설시스템공학부)
정역학(오창국 교수님) - 김미선, 국보람, 박상훈
- Moon (문과대학 교육학과)
성인학습 및 상담(천영희 교수님) - 문범수, 원종순, 이범재, 김남용
- 미.남 (사회과학대학 언론정보학부)
미디어 산업론(김도연 교수님) - 김진우, 장대한, 하지훈
- Miss (문과대학 국사학과)
한국고대사 특강(여성구 교수님) - 장형준, 이수정, 윤서정
- 청출어람 (공과대학 건설시스템공학)
강구조 이론 및 설계(오창국 교수님) - 윤광진, 김지연, 이한나, 이미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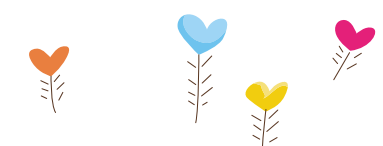
③ 점진적 진보상

- 신의 손 (산림과학대학 산림자원학과, 임산공학과)
산림 및 조경공학 (김기원 교수님) - 남영주, 추유정, 고윤정, 박선주, 주은희
- OSMU (전자정보통신 컴퓨터공학)
디지털 멀티미디어(정경훈 교수님) - 전성봉, 안지은, 정세운
- 유비무환 (법과대학 공법학전공)
노동법2(양종근, 한충훈, 길성원, 최종규)
- 마마와 신하들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과)
기초사회통계(조중빈, 안현상 교수님) - 신은경, 서정규, 손인호, 김지훈

④ 도전적 노력상

- 강조 (공과대학 건설시스템공학)
강구조 이론 및 설계(오창국 교수님) - 김민태, 이혜진, 양명준, 이종진
- 멋따, 학점! (전자정보통신 전자공학부)
일반물리 II(윤승연 교수님) - 김나영, 김재우, 김의현, 고병주, 윤정윤
- Philosophy (법과대학 사법학부, 공법학부)
법철학(황승흠 교수님) - 박청수, 고종섭, 방수용, 김나리, 이지현
- 미녀들의 수다 (국제학부 일본학과)
미디어 연구방법론(김옥태 교수님) - 박은영, 김희선, 이경미
- 유레카 (사회과학대학 언론학, 국사학과)
미디어 산업론(김도연 교수님) - 임혜정, 이정환, 강선일, 진신승
- 비타민 (경상대학 경제학부)
경제수학(전용범 교수님) - 주경훈, 차성철, 하지수, 조재은, 조수연
- 하라소 (국제학부 러시아학과, 법학과, 정치외교학과)
국제 관계의 이해(강윤희 교수님) - 이명훈, 안보경, 김다예, 이기노, 조윤정

우리는 10기 스터디 그룹입니다!!



제10기 스터디 그룹 활동 후기

프래그머티즘 II

팀장 활동을 마치며...



김문환 / 법과대학 사법학전공

2006년 가을부터 2008년 가을까지 길게만 느껴졌던 군생활을 마치고 3년 만에 학교에 복학을 하였다. 꼬꼬마였던 나는 어느새 복학생 아저씨가 되어있었다. 으레 군대에 다녀온 복학생들이 그러하듯이 나도 이제는 공부를 열심히 하기로 마음을 먹고 있던 차에 한통의 이메일을 받았다. '교수학습개발센터'라는 생소한 발신인으로부터 온 메일은 스터디 그룹을 모집한다는 내용이었다. 사실 평상시에 나는 공부에 혼자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법학 과목은 특히나 그 방대한 양 때문에 누군가와 같이 공부를 하는 일은 비효율적인 일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스터디 그룹내 메일에 적혀있던 지원물품에 끌려서 평소에 친하게 지내는 동기인 신이와 친한 후배인 승일이를 설득해서 셋이 함께 '증권거래법' 과목으로 스터디를 신청했다. 스터디 그룹명을 정하는데 무엇이 좋을지 고민하다가 문득 예전부터 내가 좋아하는 단어인 '실용주의'가 떠올랐다. 그래서 실용주의를 뜻하는 '프래그머티즘(Pragmatism)'을 그룹명으로 정하였다. 그리고 과목은 좀 실용적인 학문을 생각해보았다. 우리 프래그머티즘이 선택한 증권거래법은 2009년 2월 시행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이하 '자통법'이라한다)로 통합되어서 실질적인 학습내용은 흔히 우리가 자통법이라서 이 과목을 공부하면 요즘 한창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주식시장과 관련해서 많은 도움이 있을 것 같아 선택하게 되었다.

막상 스터디를 시작하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방대한 자통법의 양도 그렇고, 매주 작성해야 하는 주간학습보고서, 또 스터디 공간, 팀원사이의 일정 조절과 같은 문제들이 많았다. 다행히 예전부터 친하게 지냈던 사이라 모두들 팀장인 내 의견에 잘 따라주어서 큰 갈등 없이 효과적으로 스터디를 진행할 수 있었다. 그리고 스터디를 진행하면서 나의 생각이 점점 변해가는 것도 느낄 수 있었다. 방대한 수업량을 서로서로 정리하고 피드백해주면서 다른 학생들에 비해 보다 수월하게 이해하고 습득할 수 있었다. 또 교수학습개발센터에서는 우리가 보낸 주간 학습보고서에 대한 피드백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공부를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지도해 주셨다. 체계적으로 학습내용과 주제를 기술하고, 학습목표를 통해 공부하는 목적을 구체화하여서 보다 능률적인 학습이 가능했다. 무엇보다도 나는 학교에서 수업시간에 조용히 앉아서 강의만 듣는 학생이었다. 그런데 교수님과 면담을 하고 면담보고서

를 작성해야 하는 스터디그룹 활동 때문에 처음으로 증권거래법을 강의하시는 김택주 교수님의 연구실을 찾아뵙고 질문도 하고, 교수님 말씀도 듣고, 같이 식사도 해보았다.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내 모습을 발견하고 스스로 잠시 놀라기도 했다.

그 후 1학기 스터디가 끝나고 성적도 잘 받았고, 교수학습개발센터에서 '주도적 학습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하지만 많은 부분이 좋았지만 상당히 아쉬운 부분도 있었다. 그래서 2학기 때에는 조금 더 부족했던 부분을 보충해야겠다고 생각했다. 2학기 때에는 증권거래법에 이어서 '금융법'을 스터디과목으로 정했다. 금융체제의 중요성이야 설명하지 않아도 모두가 잘 알고 있을 것이고, 그 금융체제의 바탕이 되는 것이 금융관련 법체계이다. 금융법은 단일 법률이 아니고 이러한 금융체제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법들을 통칭하는 것이다. 이번에는 지난번에 잘 하지 못한 아쉬운 점들을 넘겨서 후회하지 않기 위해 팀원들이 모두 뜻을 모아 정말 열심히 스터디를 하였다. 금융법이 단일법 체계가 아니기 때문에 조사해야할 자료가 상당히 많았다. 그래서 팀원들끼리 역할을 나누어서 서로서로 자료를 매우 조사해오고 그것을 공유함은 물론이고 설명까지 해주어서 이해가 훨씬 용이했다. 그리고 경제신문을 매주 보고 스크랩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사회경제적인 지식까지 습득하게 되었다. 또한 담당교수님이신 남유선 교수님께서서는 우리 스터디그룹에게 따로 '자본시장제도론'(김용진 제)이라는 책 중에서 중요한 부분을 요약 정리할 것을 과제로 내주셔서 심화학습까지 가능했다. 매 수업시간이 끝나면 교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수업내용을 피드백하고, 세미나실에 모여서 배운 내용을 복습하고, 이해를 돕기 위해 팀원들끼리 서로 부족한 부분을 설명하고 채워주워서 어렵거나 이나마 이런 것이 스터디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2010년이 된 지금 지난 1년을 돌아켜보면 교수학습개발센터의 스터디를 통해서 복학 첫 해를 무사히 잘 적응하여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던 것 같다. 여러모로 도움을 주셨던 교수학습개발센터의 선생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담당 교수님이셨던 김택주 교수님, 남유선 교수님께도 크게 감사드리는 바이다. 또한 무엇보다도 1년 동안 스터디를 함께 같이 해온 우리 팀원들 신이, 승일이, 견미에게 너무나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제10기 스터디 그룹 활동 후기

Topology II

팀장 활동을 마치며...



김민구 / 자연과학대학 수학과

지난 2009학년도 1학기 이후 2번째 스터디 그룹 진행을 하였다. 처음에 스터디 그룹지원을 하게 된 계기는 단순히 지원물품을 받겠다는 생각이었다. 하지만 스터디를 진행 하면 할수록 스터디에 대한 재미를 느끼게 되었다. 스터디 그룹을 처음 결성해 본 것은 아니지만 내가 주도적으로 조장을 맡아서 진행을 한 것은 1학기 스터디 그룹이 처음이었다. 1년간의 스터디 모두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을 토대로 복습을 하는 형식으로 강의식 수업을 진행 하면서 잘못 이해하여 설명하는 부분이나 이해가 잘되지 않아 어려운 부분은 즉시 문답법을 통하여 개념을 이해하도록 진행 하였다. 1학기 스터디 그룹에서는 미흡한 점이 많이 있어 2학기에 하는 스터디 그룹의 그룹원들을 모집 할 때는 1학기에 스터디 그룹을 진행 하면서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하여 스터디 그룹 참가 신청서를 제출한 직후에 그룹원들끼리 미팅을 통하여 스터디 그룹의 진행 방향을 잡고 스터디 진행시에 준비해야 할 사항들을 정리 하는 등 사전에 준비를 많이 하였다. 2번에 걸친 스터디 그룹의 과목은 수학과 3학년 전공과목인 위상수학이었다. 이 과목은 사고의 과정을 많이 해야 하므로 수학과 학생들에게도 어렵게 다가오는 과목이다. 그래서 어렵게 느껴지는 과목을 혼자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스터디 그룹원들끼리 평소에 스터디를 진행하면서 조금씩 공부하며 수업시간의 진도를 맞추고 시험기간에는 지난 시험들의 빈도가 높은 문제들, 정의, 정리 등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다. 스터디 그룹을 운영하고 스터디를 진행하면서 가장 많이 도움이 되었던 점은 교수법의 향상이다. 강의식 수업을 하며, 그 자리에서 바로 질문을 받아 답을 해주는 방식으로 스터디를 진행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발표능력이 향상되었다. 설명방식에 있어서 타인을 이해시키려다 보니 논리적으로 말하는 습관이 익숙해 졌다. 발표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나로서도 스터디를 진행하면서 몸에 익힌 것들로 하여금 다른 수업시간에서 논리적으로 말한다, 제스처 및 발표하는 목소리 톤이 좋다는 칭찬까지 받게 된 것 같다. 또한 스터디 진행에서는 수학적 사고를 이용한 '왜?'라는 질문과 그에 대한 답을 서로서로 해가며 사고의 폭을 많이 넓힐 수 있는 시간이 된 것 같다. 모르는 부분은 서로 생각하며 틀리더라도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틀린 부분을 지적하여 더 뒤에 가까이 갈 수 있어 스터디 시간이 나에게서 너무 큰 도움이 되었다. 또한 스터디를 진행 했던 그룹원들은 다들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학우들이라서 판서를 하는 스터디 진행도 많은 도움이 되었다. 다들 처음에는 판서 실력이 형편없었으나, 스터디를 진행하면서 다들 판서하는 실력이 눈에 띄게 향상되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다. 판서를 받아 적는 학생이나 학우에게 필기를 잘 보이게 하며 설명하는 법, 판서를 할 때 칠판을 분할

하는 방법, 깔끔한 글씨로 판서하는 방법 등 후에 시간과 돈을 투자하여 배워야 하는 것을 스터디시간을 이용하여 배움으로써 다들 한 단계씩 업그레이드가 된 것 같다. 스터디를 진행하면서 이해가 되지 않는 풀이 방법을 서로 생각을 하다가 결국 답을 구하지 못하여 교수님과의 면담 시에 질문을 통하여 그 풀이법이 조금 잘못되었다는 말을 들었을 때는 정말 스터디 그룹을 하면서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는 과목에서 맞는 것과 틀린 것을 판단할 능력이 길러졌구나 하는 생각에 뿌듯한 적도 있었다. 스터디 그룹을 진행하면서 가장 어렵게 다가온 것은 아마 교수님과의 면담이 아닐까 한다. 수업을 들으며 뵈고, 수학과 행사에서도 뵈고, 지나가는 길에도 교수님을 뵈지만 막상 교수님에게 질문을 하거나 말을 건다는 것에 어려움을 느껴 더욱 다가갈 수 없는 교수님과 면담을 해야 한다는 말에 '어떻게 해야 하지?', '어떤 것을 물어볼까?', '뭐라고 해야 하지?' 등 많은 고민을 하였다. 하지만 막상 교수님에게 면담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말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스터디 그룹을 하고 있는데 교수님과 면담을 하고 면담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을 해야 하는데" 라고 했는데 교수님께서서는 너무나 흔쾌히 응해주시며 교수님 시간표에 수업이 아닌 시간 아무 때나 오라고 하셨다. 면담시간 동안에는 교수님께서서는 이런 것들을 한번 읽어보고 공부해보는 것도 좋으면서 많은 책들을 추천해주셨다. 전공서적뿐만 아니라 교양서적까지도 추천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다. 또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다. 또한 수업시간 중 쉬는 시간에도 많은 신경을 써주시며 질문마다 답변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다. 교수님께서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스터디 그룹에 참여 하니 꼭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이루어졌다. 두 번에 스터디 모두 만족하는 성적을 받았다. 시험기간에는 오히려 다른 과목들 때문에 스터디를 진행하는 과목에 대한 공부를 소홀히 한 것 같지만 평소에 스터디를 통하여 공부를 해온 것이 매우 큰 도움이 된 것 같았다. 이번 스터디에서는 정말로 다들 조장인 나를 잘 따라와 주고 복습 및 스터디 준비를 잘해주어서 힘든 일은 거의 없었다. 한때는 내가 너무 스터디에 신경을 안 쓰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던 적도 있었지만, 조원들이 나를 믿고 스터디 참여를 너무 잘해주었다. 합리적 탐구상을 받은 것은 내가 조장으로서 스터디 그룹을 잘 이끈 것보다 조원들이 모두 스터디참여 열을 열심히 해주 덕일 것이다. 다시 한 번 이번학기 함께 스터디를 해주었던 조원들에게 감사하다는 말과 지도해주신 김재용 교수님께도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주입식, 암기식 공부를 지양하고 자율적인 공부를 할 수 있게끔 스터디 그룹을 지원 해주신 교수학습개발센터에도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